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룬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 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천대받는 이들의 벗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운동을 대중화해서 실천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교구에서 했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었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었고 의미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회 일각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문 나눔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유언을 해 놓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법적 효력도 물론 있습니다. 가령 재산의 50%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고 50%는 무료급식소에 주라고 유언을 해 놓으면 그대로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나눔과 아울러서 시간 나누기, 노동 나누기와 같은 ‘품앗이 운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학원 강사인 젊은 엄마의 어린아이들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면 자신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김장을 해 주면 그 할머니는 아주머니 집에 가서 집안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일방

적으로 주기만 하는 방식에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품앗이 운동입니다. 나눔의 대안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겁니다.

품앗이 나눔의 방식처럼 나눔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좋은 겁니다.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면 나눔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는 계기도 됩니다. 또한 나눔의 문화가 빈약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며 무저항주의자이며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이 오로지 피안의 세계에 잠겨 악기나 연주하면서 지내는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지금 추위에 떨고 얼어 죽어 가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아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서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으면 밥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한 장이라도 사 주고,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는 함께 고통에 동참해 주어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여뵈여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우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녀 마더 데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줄 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워야만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나눔의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고나서 잊어 버리는 겁니다.(Give and forget) 더 나아가서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나눠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눔은 복음적인 나눔이 됩니다.

자선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보고 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고 뭔가를 이웃에게 나눌 때 그리고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를 할 때 그곳이 바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자선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는 자선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스바니야 예언서 3장 14절-18절

안 내 : 스바니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 주시고,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은 기쁨과 희망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화 답 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2독서 : 필리피서 4장 4절-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리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3장 10절-18절

강 론 :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1-2쪽)

예물준비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155번 ‘우리 주 예수’

영성체 후 묵상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요한에게
군중이 묻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군중에게

자선과 정의로움과 회개를 권고합니다.

야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담아 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82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 창간

- 2019년 1월 6일부터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이 발간됩니다. 아울러 공소사목은 폐간되며 개인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2019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1월 3일(목) 14:00 ~ 4일(금)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목주, 복사복(개인별), 복사복 입고 찍은 세로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만원
- 신청마감 : 12월 1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설정 50주년 관악단원 모집

- 기간 : 11.25(주일) ~ 2019.3.3(주일)
- 대상 : 관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 관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
- 문의 : 김희정 글라라 010-3804-3824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2월 17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2019년도 전례 꽃꽂이 모임

- 일시 : 1월 5일(토) 10:3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상 : 본당 꽃꽂이 담당, 전례 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

■ 제87차 ME주말

- 일시 : 1월 18일(금) 19:00 ~ 20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13일
- 문의 : 김좌중 M.콜베 010-6580-8408
천연화 베로니카 010-6500-8408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 1월 6일(주일)
- 대상 : 중학교 1-2학년
- 비용 : 15만원
- 장소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여중고생 피정

- 일시 : 1월 12일(토) ~ 13일(주일)
- 장소 : 광주 청소년 수련원
- 회비 : 2만원
- 문의 : 010-4893-0524

■ 2019년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 일시 : 7월 20일(토) ~ 8월 13일(화)
- 장소 :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 주제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 접수 : 12월 27일(목) 10:00 부터
- 비용 : 125,000원
- 문의 : 042-584-0654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 일시 : 1월 5일(토) 15:00 ~ 19:00
- 장소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
- 참가비 : 1만원
- 문의 : 02-6253-3373, 010-8360-3700
- 주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갈전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판매사업

- 영양토마스 고춧가루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전통방식으로 만든 메주 판매 : 1장 2만원
- 상담 및 주문 :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루카 14,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든에 40대 아들 뒷바라지…… 노인 빈곤 부르는 청년 빈곤”, 요즘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어떤 기사 제목입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취업 실패로 부모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과 그들의 빈곤이 다시 부모 세대의 빈곤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오늘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2017년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의 첫 구절로 삼으셨습니다. 평소 교황께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57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의 이 말씀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루카 14,13).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은 되갚을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자비를 갚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참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주로 구제의 측면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난해진 원인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보다 응급 구호만을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사회 병폐(구조적 악)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는 데까지 다가가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복음의 기

쁨』, 202항 참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시장의 신격화와 절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배척, 또는 사회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난한 이들을 양산하였습니다(「복음의 기쁨』, 56항 참조). 우리가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문제들,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선의 첫걸음은 ‘공감’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욱 보잘것없는, 마치 죄인과 같은 처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듯이, 우리도 “가장 작은 이들”을 내 형제자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올해 7월 제 주교구에 난민 돕기 성금을 전달하시면서 “우리가 부닥친 새로운 사회적 지리적 현실 앞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좀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저들을 환대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자선은 단순한 도움을 뛰어넘어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육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교회가 발표한 사목 제안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밖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동행하여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더욱 잘 참여하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자선을 실천하여 복음을 육화합니다!

2018년 12월 16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춘 주교



어느 특별한 날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경건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오늘은 봉성체를 가는 날이다. 성당에 들러 성체조배부터 한다. 방문대상자는 아흔이 훨씬 넘은 할머니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가정집이 많지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에도 가야한다. 신부님을 도와 한 달반에 한 번씩 방문한지 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묘하게 이런 일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도 수년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시설을 방문했다. 이제 끝났는가 싶었는데 성당 일을 맡으면서 다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봉성체 봉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은 있다. 성체를 영하며 행복해하는 환자들을 보면 힘이 난다. 간절한 기다림이 느껴진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된다. 처음과는 다르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학생 때 영세를 받아 지금까지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학생회 때 지도교사를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성당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며 이끌어 주시던 분도 있다. 나를 볼 때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꾸중하시던 무서운 할머니도 있다.

환자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신부님이 와주셔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고, 지난 시절을 얘기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잘 살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다르다. 유난히 강하게 죽음을 부정하는 환자가 있었다. 위암수술을 받고도 생업에 종사해야했던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암이 전이되어 위중한 상태였지만 환자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은 금기어가 됐다.

평온하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 매일 하느님 품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 지은 죄가 크다고 신부님께 하소연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더없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그러신다. 아흔 중반을 넘었어도 신부님 앞에서는 아픈 몸을 일컫어 예의를 차린다. 할머니를 보며 저렇게 삶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본인의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 놓으셨다. 그 돈은 지금까지 다문화자녀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거금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모은 돈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나는 그분을 천사라 부른다.

봉성체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쓰는 일은 더 중요하다. 내 가족 뿐 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한 번은 맞아야 할 죽음 앞에서 이왕이면 덜 후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머니를 보게 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 날 꾸중하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와도 오래지 않아 이별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할머니의 잔소리가 몹시 그리워질지도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읊조려본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오늘 성체를 모신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차창에 비치는 저녁노을이 곱다.